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주부 대상으로 제2회 주부교양강좌 실시

10월 10일~11월 7일, 매주 목요일 5차례 강좌와 실습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접하는 기회로

전 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 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되었던 제1회 주부교양강좌에 이어 제2회로 실시되는 주부교양강좌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강의와 함께 교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강좌도 기독교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주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 교육, 부부 대화, 자기 정체성, 피부 관리 등 일반적인 내용들로 강좌를 꾸렸다.

주로 교회내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여 함께 강좌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여전도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이 크게 요망된다.

이번 주부교양강좌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본 강좌의 강사는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장소는 충현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이다.

일자별 강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지난 4월에 모였던 주부교양강좌

일자	주제 및 강사
10/10(목)	자녀교육(입시생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DY학습법) 원동연 교수(중국 연변과학기술대 부총장, 한국 창조과학회 부회장)
10/17(목)	대화기법(부부, 자녀간의 대화를 슬기롭게 이끄는 법) 안덕자 교수(한국 심리상담연구소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10/24(목)	우울증(자신의 정체성 및 우울증의 예방과 치유법) 이근덕 박사(이근덕 신경정신과 원장, 한양대, 경희대 외래교수)
10/31(목)	자기관리(여성의 매력과 자기 가꾸기) 이순희 원장(한독 피부미용학원 원장)
11/7(목)	노래부르기(흥겨운 노래 배우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유혜정 강사(유혜정 노래부르기 교실, 직장 노래부르기 강사)



교역자 수련회

9월 17, 18일 - 성경연구원 휴강

교역자 수련회가 9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간 수안보파크텔에서 실시된다.

우리 교회의 전 교역자가 참가하는 교역자 수련회로 16일(월) 오전 9시에 출발하여 18일(수) 오후 3시에 교회에 도착하게 된다.

공동체 훈련, 당회장과의 대담, 기도회, 성경읽기, 조별모임, 전체회의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역자 상호간의 친교 및 교회적 과제에 대해 연구, 토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역자 수련회 관계로 이번주 17일(화), 18일(수) 성경연구원 모든 강의는 휴강되며, 19일(목)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장로수련회 은혜가운데 마쳐

지난 주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여산 육군하사관학교 유격훈련장에서 모인 장로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다.

"지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17:17)란 주제 아래 모인 이번 수련회는 청주 중앙교회 당회장 김준규 목사(부총회장), 김창인 원로목사, 조용표 목사(하사관학교 군목)가 인도하는 집회를 통하여 장로들이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계속되는 기도회와 분임토의 시간에서는 교회의 현안 문제점들 - 교구, 교육, 선교, 행정, 당회장 청빙 등에 관한 이야기를 격의 없이 나누며 서로간에 이해하고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훈련소 합동세례식

지난 9월 7일(토) 논산훈련소에서 장병 합동세례식을 가졌다. 총 5,6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날 세례식에는 우리 교회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부교역자 16명과 장로 21명, 관양대 70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오전부터 시작한 세례식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훈련소는 신병으로 입대하여 기초 훈련을 마칠 때까지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을 가지기에 좋은 곳이다. 그런데 대규모 합동세례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군 전도회에서는 계속하여 군 세례식, 군 교회당 건축, 군 교회 부흥회 인도 등으로 군 전도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해지구 교회 지원

봉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연천, 철원 수해지구 피해 교회 중 크게 피해를 입은 와초리교회, 신당리제일교회, 이길교회, 정연교회 등에 각 300만원, 200만원씩의 수해복구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폭우로 열쇠부대 신병교 육대에서 근무 중 실종된 김준모 일병(4-2교구, 이순욱 집사 아들)의 가족에게도 특별 구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였다.

충현동산 관리비 납부 요망 추석절 성묘시 주의사항도

충현동산에서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 관리비는 1기(基) 당 1년에 3만원으로 동산 관리사무소나 교회 사무국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충현동산에서 추석절 성묘객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① 묘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② 화분, 생화, 조화 등의 헌화는 묘소 잔디 성장 및 주변 미관 정리에 지장이 크므로 되도록 삼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 중의 기도

(시편 31:1-24)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견디다 못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상 섬기는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지은 곡식을 몽땅 타작해 간다는 것을 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것을 찾아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은 외롭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피난길을 또 갑니다.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1. 환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어떠합니까

(1)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짓는 시 중의 첫 마디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숨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곳,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2) 나로 수치를 면케 하옵소서
피난을 안가겠다는 부하들을 간신히 타일러서 떠나며 "피난길에 만일 다윗이 잡혀 죽든지 부하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피난했으니 걱정없다"고 했던 다윗이 부하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었으니 이 일을 면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3) 나의 요새가 되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고 지금 그일라에서 도망가는 길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속히 건져달라'는 말은 자기의 형편이 위급하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면 시간 걸리는 일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산성'이라는 말은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산성은 양식과 물이 떨어지고 군인들이 병이면 치료도 못받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니 모자랄 것도 없고 병날 것도 없고 원수가 침입할 수도 없습니다.

(4) 원수의 그물에서 빼어 내소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마치 새를 잡기 위해서 사방에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은 것처럼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에서 도망은 하지만 원수의 그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 원수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서"

(5) 거짓 입술로 병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 원수들의 입을 병어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부탁하는 기도가 어떠합니까

(1)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고로 내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사울왕과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재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육신 문제도 아니고 재산 문제도 아니고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몸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보다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2)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허탄한 것에 끌려 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일이 잘 안되면 사람의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한 것보다 오히려 큰 유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인간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칭찬받는 것보다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거듭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 원수에게 꼭 죽게 된 시간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유하는 길이 넓게 열리는 때를 과거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좁은 골목, 갈 길이 없는 모퉁이에 처박힐 때도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영혼이 은혜 받고 육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허탄한 것에 끌려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일이 잘 안되면 사람의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한 것보다 오히려 큰 유익이 올 것입니다.



3.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눈과 뼈가 쇠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부하들을 타이르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어서 눈이 아픕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뼈 속까지 쇠합니다.

(2) 친구도 없습니다
원수들은 내게 손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까닭없는 원수입니다. 가장 가까이 살던 이웃 사람들이 원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게 가장 신세진 사람이 내 원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친하게 알던 사람이, 이전 같으면 나를 멀리서 보아도 달려와서 반갑다고 할 사람이 이제는 쫓아가도 못본 척하고 돌아서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3) 깨어진 질그릇 같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일은 깨어진 질그릇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버려진 처지가 됐습니다. 질그릇, 사기그릇이 성했을 때는 좋지만 깨지고 나면 돌아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나를 사방에서 존경하였는데 오늘의 내 형편은 깨어진 그릇을 던져 버리고 안돌아 보는 것처럼 천대꾸러기가 됐습니다. 천대받는 나를 하나님이 동정해 주셔야 합니다."

4.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무서워 하고 악한 사람을 겁내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를 지키면서 부하들을 권면하고 타이르면서 고생하는 다윗은 마음 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 기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육신은 당장 고생을 계속하지만 잠시 후에 영광이 환하게 꿈처럼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런처럼 나타나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부하들을 모아 놓고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지. 이번에도 살려 주실거야. 이번에는 살려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임금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들이 될 것 아니냐.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만 충성하자. 그러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나도 복을 받고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든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처치하시든지 할테니 우리의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우리는 책임만 성실하게 지키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 번 신세를 진 사람도 오늘 의 이익이 나는 데만 따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일라성 사람들에 다 죽고 말 것을 다윗의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살아났지만, 그 속에서 사울 왕에게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니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숨길 사람은 없고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죽일 사람뿐입니다. 이것에 세상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둘째, 다른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보다 '영혼'을 부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셋째, 무슨 일이 많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을 그대로 실천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주소를 정하여 영혼이 먼저 갈리고 범사가 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군 전도와 사도행전 사건

현 상 민

(목사, 예배위원회, 7교구, 군전도회 지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일장 설교는 수많은 군중들의 가슴을 찢었고, 급기야는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성이 터져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적어도 3천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지중해 연안 15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4천여명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제2사도행전 사건이 군 전도 현장에서 일고 있습니다

매달 논산훈련소에서 50-60여명의 목사님들에 의해 약 4,5천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차적인 사건이었으나,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매월 장엄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작년 한 해 군에서 약 18만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올해는 약 2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6천교회가 일년에 주는 세례 인원보다 약 2-3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인원의 반 이상이 결심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요, 또한 경륜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년 전 전방 27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이 불행한 한 병사가 군대 생활에도 적응이 되지 않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부대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에 목을 매려고 하는데 목의 군번줄에 매달린 십자가가 손에 걸리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군인교회에 달려가 군종병에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훈련소에서 세례받을 때 받은 작은 십자가입니다.

육군 제2훈련소의 군종 참모인 동영진 목사님은 후방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군목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 버릇이 없고 개망나니가 되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이 아이가 군에 가더니 세례를 받고 새사람이 되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여 우리 부부도 이젠 교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군인 하나 전도하면 그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는 어떤 선교 대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사도행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군 전도가 한국 교회성장에 끼친 영향이 큼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놀라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이처럼 급성장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과 100년만에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성장에 크게 획을 그은 두 번의 시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는 80여년 전 1907년 성령님의 강렬한 체험을 하던 때요, 두번째는 20여년 전 군에서 전군 신자화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던 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시기에 한국 교회는 3배로 성장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교회연합에 의하면 평양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기 시작한 1907년부터 10년간 6만 명의 교인이 18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이 독립전쟁을 외친 3·1운동의 주인공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도에 180만명이던 한국 교회 신자수는 1980년도에 60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집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바로 이 시기가 군 전도에 성령의 불길이 일던 전군 신자화 운동의 절정기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2년 4월 25일 최전방 20사단 연병장에서 한 경직 목사님을 위시하여 100여명의 목사님들이 3,473명의 장병에게 합동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 매스컴들은 세계 선교 역사상 사도행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경탄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때가 군 전도의 황금기였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사다마적으로 5공시절 군 전도에 모종의 제동이 걸려 침체되었을 때, 한국 교회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 전도의 불길이 또 다시 뜨겁게 일기 시작하여 신병들이 들어오는 부대를 집중 선교한 결과 드디어 장병의 50% 가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간부양성 기관인 사관학교에 주력한 나머지 생도들의 60%가 신자화 되었고, 야전의 고급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의 70%가 기독교 장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들은 고정된 인원이 아니요 계속 사회로 나아가고 새로 들어오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임을 감안할 때 군 전도야말로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고, 우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선교현장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군 전도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군 전도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군 전도를 활성화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도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주역을 우리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묵시적 계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천여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사역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재충전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시대를 이루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대서양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복음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태평양 시대를 이루더니, 이제 우리 한국을 발판으로 세계 선교의 바통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빨리 복음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 젊은이들이 밀집된 군 전도 현장에 사도행전 사건이 연속 일어나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국내외 방방곡곡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2년 전 세계를 냉전 속으로 몰고 가던 러시아 군대 일각에서 우리에게 군목제도를 물어 왔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제일 큰 문제는 도덕적 위기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빠져나간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소를 잃어버린 러시아의 젊은이들의 텅 빈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 주어야 했는데 군목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여 러시아에 오고 가며 한국 군목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되는 그날 제일 먼저 복음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역시 북한 인민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 전도는 우리 민족 선교전략면에서 최우선해야 할 선교적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머리숙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담당할 주역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대를 옮기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적 상황으로는 군 전도보다 더 좋은 선교현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편제에 군목제도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상에 비가독국 국가로서 군대내에 군목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뉘 놓은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 모두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제2사도행전 사건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군 전도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현 군전도회를 소개합니다〉

군전도회가 창립이 된 지가 벌써 6년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는 절음마 단계에서 뛰어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회원도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회장 김재명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원확보에 열심하신 구명신 전도사님, 김정순 전도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진중세례식에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하시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전도회에서는 회원들의 정성어린 회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목표

- (1) 국군 장병의 복음화
- (2) 북한군 장병에 대한 전도
- (3) 모범을 보이는 협동체
- (4) 남한전도회, 교구 및 교회 부흥에 기여

2. 회원 신조

- (1) 순종(롬 6:16)
- (2) 겸손(눅 17:10)
- (3) 협력(골 2:2)
- (4) 기도(빌 4:13)
- (5) 중생(딤후 4:13)

3. 주제 찬송 및 주제 성구

- (1) 주제 찬송 - 358장(아침해가 뜰 때)
- (2) 주제 성구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4. 연중 사업

- (1) 군 교회 신축 및 중·개축 지원 (년 예산 2억원)
- (2) 진중 세례식 지원(매달 1-2회 지원) 부대에서 요청서 실시
- (3) 매월 군목 13명에게 전도비 지원.
- (4) 군목수련회 실시(10월 28일 예정) - 우리 교단의 67명의 군목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수련회 실시
- (5) 매년 군목후보생 수련회 실시(4월 9일 실시)
- (6) 육·해·공군 본부교회 건축 지원 - 3억원
- (7) 육군 제2훈련소 세례식 집례(9월 7일 - 5,600명) -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모든 목사님, 장로님 참석하여 집례
- (8) 각종 위문행사 실시
- (9) 성탄절 십자달 점등식
- (10) 군복음화 후원회 지원
- (11) 북한군에 대한 전도
- (12) 충현 가족 입대자 기념품 증정 - 성경
- (13) 회원 배가 운동 - 1,500명 목표 (현재 1,020명)

이번주 금요일(20일) 오후 7시에 갈릴라홀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모시고 군전도회 창립 6주년 감사와 회원 헌명 돌과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회원 및 관심있는 성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부터 메주라기홀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토막소식

▶ 초등5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 중등부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연합으로 시와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될 시와 찬양의 밤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준비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극, 독창, 중창, 기악, 시화전(시, 그림), 조명, 음향 등을 위해 정성을 다할 학생들은 박길배 선생님께 신청하면 된다.

▶ 중등1부에서는 오는 9월 29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금년도

수화교실 개강

오늘 오후 3시에 개강예배

에바다부에서는 오늘 수화교실 개강예배를 드린다. 금번에 개강하는 수화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15주간 진행된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일시: 9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교육관 109호
(에바다부 예배실)

에 배운 공과 요절이다.

▶ 고등부에서는 96년도 중창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부터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 대학부 집회 시간이 오는 9월 22일부터 오후 1시에서 12시 30분으로 변경된다.

▶ 청년1부에서는 오늘 선교보고대회를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여름

알려드립니다.

• 97학년도 총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수세1년 이상)과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수세 5년 이상)는 목사 후보생고시 청원서를

• 97년도 강도사고시에 응하실 분은 강도사고시 추천 청원서와 현재 총신신대원 재학생들은 신학계 소속추천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로 9월 18일(수) 오후 5시까지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청원서 양식이 필요한 분은 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실시했던 국내, 해외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간의 사역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역들에 대한 전망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열기를 모아 17일(화)에는 명동 대한투자금융 앞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명동 총동원 전도를 실시한다. 한편 오는 10월 6일에 있을 청년1부 총회를 위한 회원 전체 기도회를 오는 20일 금요일 집회 후 교육관 212호에서 갖는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9월 22일 반별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시편 27, 95, 114, 121, 126편이다.

▶ 장년2부에서는 오는 22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롬마서 12

선교를 위한 물품수집

• 품목: 성경책(중국어, 한글), 여름의류, 식료품(고추장, 된장, 라면 등)
• 수집기한: 9월 22일(주일)
• 문의: 선교위원회
(교한 357, 358)



장 1-21절이며, 오늘 예선을 갖는다.

▶ 권사회 수련회가 지난 9월 9일(월)과 10일(화) 양일간 교회에서 후암교회 손상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마쳤다(위의 사진).

▶ 장년3부에서는 오늘 낮 12시 30분에 교육관 307호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주제는 '합심기도의 능력' 이고 강사는 장봉생 목사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지정곡은 찬송가 102장, 210장, 453장 중 1곡이며 자유곡은 찬송가 중 1곡을 선정하여 1절만 부르면 된다.

▶ 가브리엘찬양대의 반주를 담당하고 있는 백금옥 집사가 오는 9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에 소망교회에서 파이프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 96 장로 수련회를 마치고 ▶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

손 경 수
(장로, 당회 부서기)

약 두 달간의 기획과 강사 섭외 및 장소 선정을 거쳐 예정된 일자, 예정된 시간에 장로 수련회는 개최되었고, 일정표에 따라 9월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행사를 주관한 당회 서기부는 수련회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다. 첫째는 3일간의 장로님들 참여 문제이고, 두번째는 장소가 군 부대 내부반이라는 점, 그리고 섭외강사의 허락 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애리석은 걱정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정도로 해결해 주셨다.

개인사업을 하는 장로님들은 3일간 가게 문을 닫고 오게 했고, 직장생활을 하는 장로님들은 휴가원을 내서 장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한 것이다.

우리의 예산을 뒤엎고, 목표 이상의 숫자가 참여하여 활기가 넘쳤으며, 수련회 장소 역시 기대 이상의 너무 좋은 곳이었다.

전북 여산지역(군 보안상 부대명과 제휘관 성명은 밝히지 않겠음)의 육군 하사관학교 유격 훈련장은 민가가 보이 지 않는 산 속에 자리 잡았다.

수목이 울창한 산들이 병풍을 친듯한 반듯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아래로는 저수지로서는 무척 큰 연못(?)이

있어 참석자들이 탄성을 지를 정도였고, 서울서는 도저히 맞볼 수 없는 맑은 공기, 쾌청한 파란 하늘, 이름 모를 풀벌레와 산새들의 지저귀이 지상천국(?)의 착각 속에 빠질 정도였다.

세번째 우리가 염려했던 강사는 예상외로 총회 부총회장이며 청주중앙교회 담임인 김준규 목사로 확정된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를 앞두고 바쁜 스케줄로 동분서주하고 계신 부총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 이틀간의 시간을 내준다는 사실은 고맙기가 그지없는 현실이었다.

첫 개회예배에서 김장인 원로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봉독한 후 모범교회가 되기 위한 장로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여 뜨거운 열심으로 더욱 불사할 것"을 강도 높게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불평 불만 없는 감사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과, 수련회 기간 중 데살로니가전서 전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것을 부탁했다.

주장사이신 김준규 목사는 창세기 1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람의 새로운 삶을 소개하며, 일하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로마서 6장 12-13절을 근거로 "믿음의 생애와 산용"의 재무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승리의 생

활,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과 성경 말씀에 준한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장로 스스로가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새벽기도회와 특강을 맡은 조용표 목사는 기도생활의 철저한 대비와 2020년 비전인 전 인구의 70% 복음화를 위해 군전도와 군지휘관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에 전국 교회가 헌신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역설했다.

4개조로 편성된 조별 팀워크의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거리낌없이 나누었으며, 장로라는 동료의식을 더욱 돈독히 했다.

저녁 9시부터 진행된 집중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점들과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예배, 교육, 전도, 세계선교, 봉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제한된 시간을 초과해서 취침시간이 줄어들었고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새벽찬양 일정들이 밤 11시에 끝났지만 각 조별로는 새벽 2시까지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련회에 전지한 시간 계획인 조별 토의에서는 (1) 21세기 총현교회 선교 전략을 비롯하여 (2) 1997년도 교

구개편에 따른 효과적 행정 운영 방법, 그리고 총현교회의 현실적 과제인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문제, 폭주하는 주차 관리 및 개선점, 강단 메시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젊은층 교인들의 등록 및 관리문제에 집중적인 토의와 의견 개진이 있었다(구체적인 토의 내용은 교회 활성화에 반영될 것임).

장로 수련회는 둘째날 대야산에서 심신 단련훈련도 가졌다. 약 2시간에 걸친 산행은 온 몸이 땀을 적시면서 정상을 정복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대둔산 국립공원을 관광하면서 대자연의 오묘한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놀라움과 감사의 기도도 가졌다.

참여한 장로님들 스스로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지켜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고, 첫날부터 마치고 떠날 때까지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도와 격려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격장 훈련소를 장소로 제공한 하사관학교 교장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에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한 유격대장 강교 이하 모든 기간 강령들에게 장로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사를 드린다.

휴식시간에 아까워 성경을 읽으며 암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장로님 여러분들에게도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쾌청한 날씨와 한 잔의 안전사고 없이 장로 수련회가 마치게 됐을 감사드리고 순서를 맡아 진행하고 인도하신 각 조장 전배 장로님과 집중기도회 인도를 맡은 두 분 장로님, 찬양을 맡은 네 분의 장로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는 장로 수련회가 올해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기획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순서없이 기행문 형식으로 이 제면을 마치고자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